

2017년 5월 22일, 조천읍 함덕리 함덕3구경로당, 강수경 조사.

제보자1: 양정렬(여, 1933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제보자2: 김복덕(여, 1936년생, 조천읍 함덕리)

- 줄거리: 여름에 밭에 갔다가 뱀 두 마리가 불어 있는 걸 봤다. 그걸 보고 놀래서 정신이 완전 나가버렸다. 이쪽으로 가면 그 뱀이 나타나고, 또 저쪽으로 가도 뱀이 나타났다. 집에서 누워도 그 뱀이 눈에 자꾸 보였다. 그래서 제주시 동문통 보살한테 가서 사정을 말하니, 소금, 삽, 호미를 준비하여 오라고 하였다. 소금, 삽, 호미를 준비해서 찾아가니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난간에 앉았다. 보살이 나오더니 삽으로 등을 탁 두드리더니 정신이 바짝 났다. 다음 호미로 목에 대면서 너 안 나가면 죽이겠다고 하였다. 그렇게 하고 보살집에서 일주일을 살면서 계속 굿을 하니 몸이 좋아졌다.

**[조사자]** 뱀에도 놀레엉으네 굿헙니까?

**[제보자1]** 건 몰라 우린, 범에는 그런 거는 몰른다.

**[제보자2]** 그건 저 칠성.

**[조사자]** 칠성.

**[제보자2]** 칠성에 놀렌 것도 칠성을 다스려사 뒤주.

**[조사자]** 그런 일은 엊수과?

**[제보자1]** 우린 그런 것엔 안 헨.

**[조사자]** 아니, 들은 거. 본 거 말고 들은 거.

**[제보자2]** 아, 나가 밧디 뎅기당야. 그 베염 두 개가 막 그냥 부뜬 걸 봤주게.

**[제보자1]** 아 그건 정말, 는 정말 는…….

**[제보자2]** 그걸 보난야 그걸 빤 놀래주게. 나가.

**[제보자1]** 놀래곡 말곡게

**[제보자2]** 놀래난야 그냥 정신이 완전히야 도라짱같이 헌 사름같이 경 헤전게. 계난 울로 요 밧디만 요디 가민 그것이 나타나곡. 또 요디 가민 요디도 나타나곡.

**[제보자1]** 눈에 그냥.

**[제보자2]** 눈에, 나 눈에 막 건줘게.

**[제보자1]** 막 얼망거련.

**[제보자2]** 경 헤네야. 저 시에 동문통 보살안티 갓어. 가나네 그 보살이 허는 말이 소금 훈 관뒈허곡 저 삽허곡 호미허곡 경 가정 오렌. 경 행 가져갓어. 가정 가난야 들어오도 못허게 헛디다. 그다. 보살이. 들어, 방 안터레 들어오지 말렌. 경 헤네 이젠 난간에 영 앗았어. 앗인디야 그냥 보살이 나완게만은 그냥 삽으로 그냥 등딸머리를 탁 두드려. 삽으로야. 두드나네 이젠양 정신이 바짝허게 나저. 경 행 또 이젠 호미로 이젠양

“너 이놈우 주식 안 나가민 너 죽이肯.”

그냥. 경 허멍 막 그냥 모가지레 데연야 경 막 답도리를 헛디다게. 경 행 그 디서야 그거 헤난야 들어간에 일주일 살았어.

**[조사자]** 그디 보살집이?

**[제보자2]** 응. 경 헨 이젠 허연에게, 훈 일주일, 막 그디서 답도리허멍 허연게야 그냥 좋 아불언게.

**[제보자1]** 응. 그 사름 걱센 쟁이라. 게난 옛 어른은 그렇게 말해. 의심이 병이라고이.

**[조사자]** 의심이?

**[제보자1]** 응. 자기 마음. 마음이 병이다. 그 말이여이. 마음이 이것이 이거다 허믄 그냥 어딘가 몰르게 이것이 죄책감이 잇게 자기 머리에 입력된던 그말이주게.

**[제보자2]** 그냥이 그거 답도리 안 헐 때는 누민이 눈썹에 그것이 자랑자랑자랑 돌아져.

**[조사자]** 뱀이?

**[제보자2]** 응. 경 헤네 나 살아낫어. 경 안 허민 그거 안 떼민 그냥 죽넨.

**[조사자]** 그거는 언제 얘기마씨?

**[제보자2]** 그거는 여름엔디. 여름엔디 칠팔월에.

**[조사자]** 칠팔월에. 게난 지금으로부터 언제쯤인 거 닮아마씨? 몇 년 전쯤 닮수과?

**[제보자2]** 그때가 훈 오십. 오십에 웬실 거라. 경 헤젖일 거라. 오십.

**[조사자]** 오십에 마씨? 거믄 얼마 안 됧네예?

**[제보자2]** 응. 얼마 안 됧어.

**[제보자1]** 삼십 년 후라이.

**[제보자2]** 삼십 년 됧주.

**[조사자]** 이제 여든이우과?

**[제보자2]** 여든둘.

- 핵심어 : 베엄, 칠성, 보살, 답도리, 여름, 호미, 소금, 삽